

권홍량 선교사님의 선교편지

4/25

서바이버(생존자) - 간암 발생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코비드 기간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자랑스러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는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데 이어 저희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작년 2022년 4월 11일 초기 간암이 발견되고 색전술을 통해서 제거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 4월 17일 재발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간 경변과 심장이상으로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으로 2016년 내출혈(internal bleeding)이 발생해 응급실에 실려간 이래, 잘 견디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암을 진단 받고 살아가는 분, 특히 5년 이상 생존해 계시는 환자분들을 암 생존자 또는 암 경험자 (cancer survivor)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는 여전히 높은 재발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며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아직은 '암 생존자'의 범주가 아닌 간경변으로 인한 재발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아내 임선교사는 여전히 골다공증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어서 약을 복용중이고 특히 자주 호흡을 힘들어 해 심장 전문의와의 일차 상담후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체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 현지의 열악한 환경이 체력을 약하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열정은 어느 때보다 여전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현재는 후임사역자가 현지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선교현지에서의 거주를 비거주로 변경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건강을 돌보는 것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3:9-

코비드를 비롯해서 많은 질병과 갑자기 다가온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음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실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기도로 차드 선교에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과 이름없이 함께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의 동역이 저희에게 큰 용기와 감동, 그리고 힘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벼농사, 예배당, 보건소와 우물, 등 선교 사역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사랑의 빛진 자된

임헌진,권홍량 드림.

<https://youtu.be/d-8fOrGW3HY>

